

전주시, 공유경제로 '반값 생활비 도시' 실현

공간·물건·재능·지식 등 이웃과 나눠쓰기 시범사업 진행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지원...법인·단체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반값 생활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간과 물건, 재능, 지식 등을 이웃과 나눠 쓰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유를 통해 사회·경제·환경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과 민간의 자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유경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공유경제 시범사업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공간, 물건, 정보

및 지식 공유 등을 통해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로, 총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법인 또는 단체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와 같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 활동 또는 수혜 지역이 전주가

아닌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회원의 단순 단합이나 친목을 위한 사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해 공유경제 시범사업을 통해 주방 도서관, 육아 정보 지식 공유 및 재능 나눔, 서신길 별별마켓 운영 등 총 3개 사업을 전개했다. 아중리만공동체는 매일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용기를 기부받아 대여하는 주방용품 공유 도서관을 운영하고, 청년·다문화가족·직장인·어르신 등에게 요리 강좌도 진행했다. 또 식료품을 공유해 함께 식사하는

소셜다이닝(공유데이)도 운영했다. 전북팜스플릭은 이유식 재료와 육아용품 등을 공유함으로써 반값 양육비를 유도하는 사업을, 서신동 주민들과 수공예작가들은 수공예품과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열고, 재능기부 문화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공간·물건·재능·지식 등 무유형 자원을 함께 나눠 활용하는 반값 생활비 도시 전주 실현을 위해 공유경제 시범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호남고속도로 장성 IC.

호남고속도로 장성 나들목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

전국 19곳 내달 타당성 조사

장성을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전용 IC(Interchange·나들목) 신설이 추진 중이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을 포함한 전국 19곳에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내달 시작된다. 장성군은 호남고속도로도 장성졸음쉼터에 하이패스IC와 접속도로(500m)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해 말 전남도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했다. 용역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면 국도교통부가 최종 승인한다. 허가 여부는 올해 9~10월께 나올 전망이다. 하이패스전용IC 설치 허가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2년 연말께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장성JC(Junction·분기점)와 장성IC를 잇는 5.36km 구간의 중간쯤에 자리한 졸음쉼터에 하이패스IC를 만들면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당위

성을 강조했다. 장성JC에는 장성을 방면 진입로가 없어 장성IC까지 돌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장성읍 북부와 북일·북하·서삼면 일원 6942가구 1만4978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준공 예정인 LH 3차 공공임대주택 150호 입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이패스전용IC는 2011년 12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에 처음 개통한 이후 현재 13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을 중심지역에 설치하는 하이패스IC로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며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한 '계판5분展'이 40일 동안 전국에서 2만2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세계 갑각류 전시 '계판5분展' 성과

전국 2만2000여명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찾아

남원시가 세계 갑각류 전시회를 한국에서 소개하고자 마련한 특별전시회 '계판5분展'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열린 '계판5분展'이 전국 2만2000여명을 끌어 모으는 등 인기를 끌었다. 전시회는 세계 다양한 계를 만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펼쳐졌다. 전시회에서는 계와 가재, 새우 등 세계 50여종 2000여마리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갑각류가 전시됐다. 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체험거리도 선물했다. 시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프로그램 '갑각류 생태

놀이'와 아이들의 정서와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해양생물 터치풀', '모래놀이' 등을 선사했다. 특히 전시회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남해군 등 전국 각지의 해양관련 전시 및 교육관계자들이 방문했다. 시는 우수한 전시기획력을 전국에 선보인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겨울방학특별기획 '계판5분展'은 남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만나(계), 즐김(계), 재밌(계), 행복하(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전주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야호 예술놀이터' 조성 착수

전주의 노후화 산업단지인 팔복동 폐공장 애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폐공장을 재활용해 문화시설을 짓는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팔복예술공장 2단지인 '야호 예술놀이터' 조성에 착수했다. 야호 예술놀이터에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모두 25억원이 투입된다. 새로 들어서는 시설에는 예술교육관과 예술활동관, 야외 놀이터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을 위한 창작과 놀이 중심의 융·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영농 안전사고 대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익산시는 영농활동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자차 수리비·자기 신체상해 보상 등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한다. 이 보험은 전체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25%를 시에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축협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063-859-4323)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ij@

정읍시,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기회 36가정으로 확대

정읍시가 올해 다문화가족의 고향방문 기회를 확대 지원한다. 정읍시는 최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선정 심의를 거쳐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대상 36가정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2010년부터 매년 10가정을 선

정했지만 올해는 36가정으로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에게는 1가정 당 (4인 기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2월부터 10월까지 원하는 시

기에 고향에 다녀올 수 있다. 대상자액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다. 이번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신안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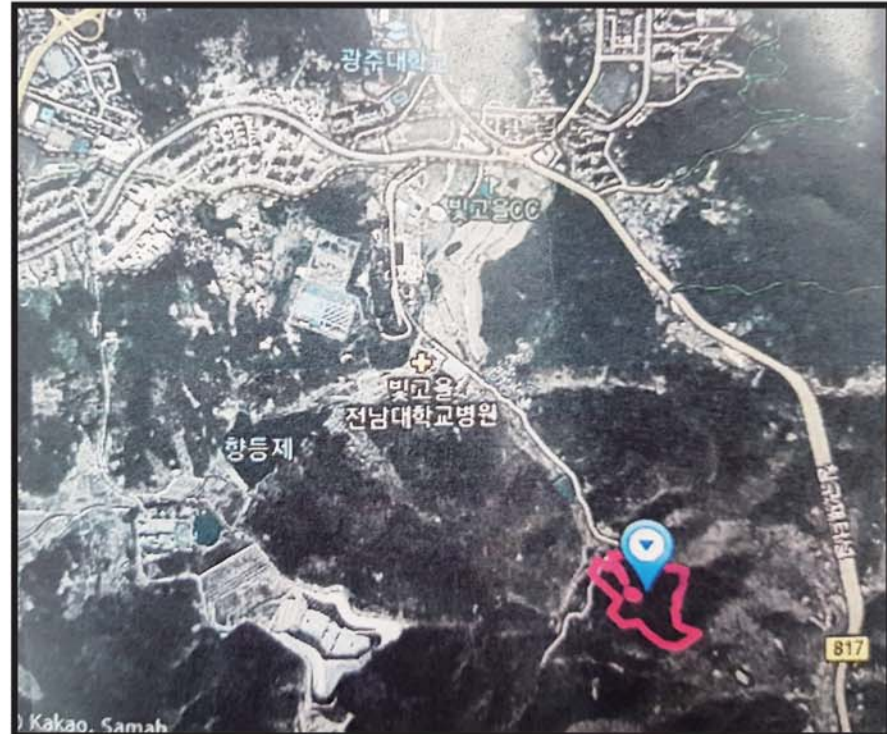
단체 숙박·음식점 이용시 차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신안군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학교, 자전거 동호회 등이 관내에서 숙박과 음식점을 이용하고 관광지를 방문하면 1인당 5천원에서 3만원을 지원하는 등 숙박 일수와 방문지역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관광사업체는 여행 3일 전에 여행계획

서를 제출하고 여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관광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 지원 외에도 자전거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공유지분 300평
- 전체 22600평중 일부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